



APEC/PECC KOREA NEWSLETTER



한국 APEC 연구 컨소시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압곡동 300-4 (우. 137-747)
TEL : 3460-1096 FAX : 3460-1162 E-mail : kimhs@kiep.go.kr

● 발행인 : 이경태 ● 편집인 : 김상겸

Vol. 10, No. 1, 2007년 3월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

제1차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논의주제

-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2007년에도 DDA 협상 진전이 APEC의 최우선과제라는 점에 공감
 -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연구보고서 작성, 정상회의에 보고기로
- ◆ 구조개혁
 - 경제위원회(EC)와 무역투자위원회(CTI) 및 재무고위관리회의(SFOM) 등 관련 포럼과의 구조개혁 분야 협력도모
- ◆ 경제기술협력
- ◆ 인간안보의 증진
 - 대테러: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테러공격 차단' 등 신규제안 이니셔티브의 논의
 - 보건안보: 조류인플루엔자 및 HIV/AIDS 확산과 관련 역내 보건안보 이슈의 중요성을 확인
 - 재난대응: 2007년 3월에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긴급사태대응대책반(TEEP)의 기한 연장
- ◆ 기타
 - APEC 프로세스와 ABAC간 관계강화 방안 연구
 - 신규회원국 모라토리움
 - 비회원국 참여
 - APEC 개혁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의 본회의가 2007년 1월 18일(목)에 호주의 David Spencer 외무부 차관보를 의장으로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되었다. 15일인 월요일에는 본회의에 앞서 비공식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구조개혁, 경제기술협력, 인간안보 의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번 정상회의의 논의결과를 주요 이슈별로 정리한 것이다.

1.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회원국들은 2007년에도 역시 DDA 협상 진전이 APEC의 최우선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SOM(고위관리회의) 의장은 회원국들이 DDA 협상 진전을 위해 개별 및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원국들은 또한 2007년 정상회의에 보고할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방안 연구보고서 작성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부 회원국들은 본 연구에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이 DDA 협상 및 보고르 목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회원국들 간의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4개 chapter로 구성될 예정이며, (1) 아·태지역 경제통합 현황, (2) 아·태 경제통합의 APEC에의 함의, (3) 지역 경제통합 방안과 (4) 지역 경제통합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07년 2월 및 5월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회의 계기에 개최될 고위관리들간의 비공식협회의와 2007년 4월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 II) 계기에 개최될 SOM 정책대화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며 본 회의를 통해 민간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0년까지 거래비용 5% 추가 감축을 위한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안(TFAP2) 개발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회원국들은 고위관리회의가 중소기업 실무그룹 등 APEC내 여타 회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7월에 있을 통상장관회의에서 행동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안은 통관 절차, 표준 및 적합, 기업활동 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4개의 주요 무역원활화 분야의 추가사업 내용도 포함된다.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무역투자위원회(CTI)에 지역/자유무역협정(RTA/FTA) 표준모델안 개발, 무역원활화, 투명성 및 경쟁정책, 투자 및 원산지규정 등의 분야의 진전에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무역투자위원회(CTI)는 지역/자유무역협정(RTA/FTA) 표준모델안 개발에 있어 작년 중 합의된 6개 분야 외에 2007년에도 추가 모델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과 관련, 일본은 APEC내 지적권 보호 노력의 지속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허 신청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특허 취득 절차에 대한 APEC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2. 구조개혁

회원국들은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하고 경제위원회(EC)의 구조개혁 분야 사업이 경제정책 분야 고위관리들의 참여로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제위원회가 구조개혁 관련 사업에 경제정책 분야 고위관리들의 참여를 촉진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경제위원회와 무역투자위원회(CTI) 및 재무고위관리회의(SFOM) 등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 보완성을 극대화하도록 권고하였다.

회원국들은 APEC내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및 관련 포럼들이 구조개혁 이슈를 포함한 APEC의 현안과제에 대한 분석 및 실행능력 등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 호주와 일본이 제안한 사무국의 분석 및 평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발적 공여 기금에 대한 제안을 환영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고위관리회의에서는 경제위원회(EC)가 구조개혁 이슈와 관련된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APEC내 관련 포럼에서 논의되는 구조개혁 관련 이슈들을 잘 숙지하도록 권고하였다.

3. 경제기술협력

고위관리회의는 2006년의 개혁 성과물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APEC 사무국이 SCE 의장과 협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SCE 의장은 1월 17일 개최된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2006년 합의된 APEC 일부 회의체 통폐합 방안의 실제 이행', '2007년 SCE 작업계획' 및 'SCE 사업 평가기준' 채택 등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중국은 APEC 지원기금(ASF) 200만 달러 공여를 위해 1월 15일 APEC 사무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07년 2

월부터 자금 집행이 개시된다고 소개하였다.

4. 인간안보의 증진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2006년 하노이에서 정상들이 각료들에게 오는 9월에 '에너지 수요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보다 오염도가 낮은 에너지 개발과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점을 지지하며 본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7년에 주요 에너지 관련 의제로 추진되는 의제는 'APEC 에너지 투자 및 무역 세미나 개최', '회원국별 에너지 정책 검토회의(peer review)',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APEC 협력방안' 등이다. 고위관리회의에서는 2007년 3월 26 ~ 30일에 개최되는 에너지실무그룹(EWG)회의 및 5월 27 ~ 30일에 개최 예정인 에너지장관회의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7년 9월에 열리는 각료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테러 관련, 박상기 대테러작업반(CTTF) 의장은 CTTF 회의(1월 19 ~ 20일 양일간 개최)에서 논의될 2007년도 작업계획 및 신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CTTF 활동방향에 있어 정상 및 각료 합의사항 이행, 관련 국제기구 및 APEC내 관련 포럼과의 협력 강화, 대테러 능력배양 강화, 공공인식 제고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2007년에 추진 계획 중인 CTTF 협력사업은 종합공급망 안전, 식품보호, 테러자금 차단, 민간항공 안전 강화, 항공안전분야 담당관 연락망 구축 등이며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테러공격 차단, 대테러 관련 효과적인 민관파트너십을 위한 APEC 가이드라인의 개발 등이 신규 이니셔티브로 제안되었다.

보건안보 이슈와 관련, 회원국들은 에이즈,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과 관련한 역내 보건안보 이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1월 19 ~ 20일 개최되는 보건실무그룹(HTF)에서 논의될 제안 및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며 2006년 조류인플루엔자 각료회의시 합의한 바 있는 APEC 조류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응 행동계획의 이행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6년도 APEC 일부 회의체 통폐합 방안에서 HTF를 실무그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 HTF가 자체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 II)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재난대응 이슈와 관련 긴급사태대응대책반(TFEP)의 활동기



최근행사

APEC SOM 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2007. 1. 15 ~ 26 호주 캔버라)

2007년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가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되어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2006년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국경내 무역장벽,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아·태 자유무역지대 추진전망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련회의에서는 대테러, 지적권보호, 농산물기술, 보건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대응방안 등 아·태지역 현안과제들이 논의되었다.

다음은 금번 고위관리회의 관련회의 중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와 경제위원회(EC) 회의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Meeting of the APEC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CTI) 제1차 무역투자위원회 회의

(2007. 1. 19 ~ 20 호주 캔버라)

제1차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가 의장인 Chris De Cure의 주재로 1월 19 ~ 20일 캔버라에서 개최되었다.

WTO/DDA에의 기여방안, 지역/자유무역협정(RTAs/FTAs), 무역원활화, 디지털 경제 및 지식재산권, 투자, 투명성 및 대테러 등 주요 분야별 세부 작업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역투자위원회(CTI)는 2007년에도 DDA 협상 진전을 위한 APEC 차원의 기여 가능성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무역투자위원회(CTI)는 2006년도에 채택된 6개 chapter의 RTA/FTA 표준모델안에 이어 추가 표준모델안을 개발 중이며 2010년까지 거래비용 5% 추가 감축을 위한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안(TFAP2)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Economic Committee(EC) First Plenary Meeting 제1차 경제위원회 회의

(2007. 1. 21 ~ 22, 호주 캔버라)

제1차 경제위원회(EC) 회의가 의장인 Robert Buckle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교수의 주재로 1월 21 ~ 22일 캔버라에서 개최되었다.

구조개혁 논의와 관련, 회원국들은 구조개혁의 다양한 이슈 중에서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자는 제안에 공감하였으며 구조개혁 분야의 국경내 장벽이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하였다. 회원국들은 구조개혁 단계에서 정보공유와 능력배양이 회원국 전체에 유익을 주는 주요 요소로 보았으며, 구조개혁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 정립 방안, 프로세스의 진행 방안 및 구조개혁이 가져올 유익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구조개혁의 주요 특정 이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회원국들은 캐나다가 작성한 「구조개혁지표」 보고서를 회람하고 Robert Buckle 의장은 본 보고서가 각 회원국이 구조개혁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보고서를 평가했다. 본 「구조개혁지표」를 각 회원국이 달성할 구조개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지표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부 회원국은 실행의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상 의제(LAISR)'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협의체들간의 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보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원국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쟁정책규제완화그룹(CPDG), 경제법인프라강화(SELI)그룹, SFOM(재무고위관리회의)의 의장들이 참여하여 각 회의 및 실무그룹의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브리핑하는 순서가 마련되었다. 특히, 구조개혁 분야에서 각 협의체와 경제위원회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7년도 APEC/OECD 규제개혁 통합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평가에는 우리나라와 호주,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7년 한 해 동안 본 자체평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연락처 : 장제학 외무관 /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Tel : 2100-7653 Fax : 2100-7980
E-mail : jhjang92@mofat.go.kr

5th APEC Transportation Ministerial Meeting 제5차 교통장관 회의

(2007. 3. 28 ~ 30, 호주 아델레이드)

제5차 APEC 교통장관 회의가 호주 연방정부의 지역교통부장관(Minister for Transport and Regional Services) 겸 부수상인 마크 벨리(Mark Vaile) 장관의 주재로 3월 28 ~ 30일 3일간 호주 아델레이드(Adelaide)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향후 테러리스트 위협에 대한 역내 교통보안의 강화(Strengthening transport security across the region against the threat of further terrorist attacks)'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APEC 지역내 교통 시스템 네트워크 특성상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그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교통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의 위협을 예비하고 보안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회원국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번 회의는 회원국간의 협동과 능력배양을 통한 각 회원국간 교통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APEC 회원국간의 최적관행을 수립하고 정보 및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지역내 교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 이 분야에서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예로 싱가포르가 주관한 종합 공급망 보안(Total supply chain security) 사업과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주관한 양국간 항공보안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항공보안과 관련, 최근 전세계적으로 LAGs(Liquids, aerosols and gels)에 대한 기준 수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현재 각 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요건이나 시행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호주에서는 LAGs에 관한 새로운 보안기준이 2007년 3월 3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역내 항공보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새로운 보안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APEC 회원국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14th APEC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inisterial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14차 중소기업장관회의 및 관련회의

(2007. 3. 4 ~ 9, 호주 호바트)

제14차 중소기업장관회의 및 관련회의가 3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 호주 호바트(Hobart)에서 개최되었다.

8일과 9일 양일에는 중소기업장관포럼 및 본회의로 구성된 제14차 중소기업장관회의가 '경제 통합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추진(Driving SME Growth through Economic Reform)'이라는 주제 아래 호주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및 관공부 장관인 프랜 베일리(Fran Bailey)의 주재로 개최되어 약 4,900만 개 역내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현안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분야를 개발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도록 하는 중소기업들 이니셔티브의 실행방안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중소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관행 이니셔티브 등 사업의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중소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및 수출 장애요인 개선방안에 관한 의제도 논의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산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중소기업들간 공동 최적관행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정부에서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와의 거래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업을 촉진하자"는 것으로 본 회의의 결론이 APEC 역내 중소기업들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유행성 독감 대비 가이드(Pandemic Flu Planning Guide)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본 가이드는 유행성 독감 발생에 대비하여 사업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유행성 독감 발생시 기업 및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유행병 발생시 사업을 유지하고,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며 가정내에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점검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APEC 유행성 독감 대비 가이드는 미국의 보건사회복지부와 질병관리및예방센터의 협력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교통부 강영일 물류혁신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건교부와 외교부의 합동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강영일 본부장은 '항공보안 강화와 국제협력 증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3rd APEC Meeting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Mining

제3차 APEC 광업 장관회의

(2007. 2. 12 ~ 16, 호주 퍼스)

제3차 APEC 광업장관회의가 호주 산업, 관광 및 자원부 장관인(Minister for Industry, Tourism and Resources) 이안 맥팔렌(Ian Macfarlane)의 주재로 호주 퍼스(Perth)에서 개최되었다.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된 이번 회의는 본회의를 비롯, 알코아 오스트레일리아 알루미나 광산(Alcoa Australia alumina mine) 및 정화시설 방문과 광산업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의 장관, 기업 임원 및 NGO 대표들이 참여하여 광업부문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sustainable development)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번 장관회의를 통하여 회원국들은 APEC 역내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역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광물 및 금속 분야에서 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광물 및 금속 분야의 수요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이 당면한 어려움과, 대체기술 개발 및 대체기술의 적용시 필요한 새로운 연료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현안 과제를 크게 네 부분, 즉 '광물 시장의 글로벌 수요-공급', '효과적인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개발과 실행방안', '실천사항'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실천사항과 관련 「APEC 광업 정책 원칙」(APEC Mining Policy Principles) 10개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향후행사

APEC SOM I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

(2007. 4. 16 ~ 24, 호주 아델레이드)

연락처 : 장제학 외무관 /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Tel : 2100-7653 Fax : 2100-7980
E-mail : jhjang92@mofat.go.kr

8th APEC Energy Ministerial Meeting 제8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2007. 5. 27 ~ 30 호주 다윈)

연락처 : 권영희 사무관 / 산업자원부 에너지지원정책팀
Tel : 2119-5416 Fax : 504-5001
E-mail : yhkwon@mocie.go.kr

APEC Study Centers Consortium Conference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컨퍼런스

(2007. 4. 18 ~ 20, 호주 멜버른)

연락처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Tel : 3460-1096 Fax : 3460-1162
E-mail : kimhs@kiep.go.kr

2nd Meeting of ABAC 제2차 기업자문위원회(ABAC) 회의

(2007. 5. 28 ~ 6. 1, 일본 도쿄)

연락처 : 임찬석 부장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
Tel : 3771-0214 Fax : 2100-0110
E-mail : lcsldk@fki.or.kr

APEC 교육재단

최근행사

2007년 제1차 AP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 (SCE) 회의 참가

(2007. 1. 17, 호주 캔버라)

APEC 교육재단은 2007년 1월 17일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회의에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안충영 이사장, 남상열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 1인이 재단 대표로 참석하였다.

교육재단은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AP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 의장 및 교육재단 관계 회원국의 대표자들과 비공식협의 회를 갖고 교육재단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관심을 요청하고 나아가 교육재단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제1차 AP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전체회의에서 안충영 이사장은 현재 교육재단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APEC내 대표적인 ECOTECH 사업 수행기관으로 발전한 교육재단의 업적과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교육재단이 출범한 이후 지원하고 수행한 사업성과에 관한 APEC 회원국들의 정당한 평가를 요청하고, 이와 함께 교육재단의 최대 현안인 기금 모금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재단의 대표적인 수혜국인 필리핀, 베트남, 페루의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교육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를 표하였으며, 특히 교육재단의 활동과 기능이 자국 및 APEC 역내 교육환경 개선 및 정보통신기술(ICT) 격차 해소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교육재단의 활동 및 한국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 Working Group)의 의장(Lead Shepherd)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가한 Alan Ginsburg 박사(미국)는 2001년도 교육재단의 대표적인 성과 사업인 APEC 사이버교육협력 컨소시엄(ACEC) 사업에 자신이 미국측 담당자로 동참했음을 밝히며, 향후 교육재단의 거취 문제에 있어 HRD Working Group과의 협조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하였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경제기술협력위원회 의장(Amb. Juan Carlos Capunay, 페루)은 APEC의 입장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교육재단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와 같이 APEC 회원국들 사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교육재단은 현재 진행 중인 '소외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증진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6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또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향후 학술진흥금 지원사업의 강화 및 다른 APEC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APEC내 교육 및 인간능력배양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협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여 APEC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필리핀 eSkwela Center 개소식 참가

(2007. 2. 7, 필리핀 Quezon City)

교육재단의 남상열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 1인은 2007년 2월 7일 필리핀 퀘존시티(Quezon City)에서 거행된 eSkwela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필리핀의 Human Capital Development Group에 의해 진행 중인 eSkwela 사업은 교육재단이 2005년에 승인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6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정규학교의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필리핀 대도시의 저소득층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eSkwela 센터를 설립하여 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소식은 이 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전체 4개의 eSkwela 센터 설립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Quezon City내의 센터 개소식이며, 이 사업과 관련된 필리핀 정부 및 지역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교육재단의 남상열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향후 재단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사업의 발전적 확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필리핀 고위급 정부 관계자 외에도 홍종기 주 필리핀 대사 및 Ms. Luli Macaoagal-Arroyo(Arroyo 대통령의 딸)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지역 신문과 방송사의 취재진들이 다수 참여하여 교육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APEC 교육재단 지원 사업 현황

- 한국 숭실대 및 캐나다 아카디아 소기업 센터 사업의 중간 보고서가 사무국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 및 이사진의 승인절차를 거쳐 곧 학술진흥금 2차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 페루의 Huascarán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이 2007년 1월에 체결되고 학술진흥금 1차분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교육센터에 대한 전산 및 통신장비의 도입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필리핀 Human Capital Development Group의 eSkwela 사업은 2007년 2월 Quezon City 및 San Jose Del Monte에 각각 eSkwela 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중간보고서 역시 사무국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 및 이사진의 승인절차를 거쳐 곧 학술진흥금 2차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대학 사업의 중간보고서가 사무국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 및 이사진의 승인절차를 거쳐 학술진흥금 2차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연락처: APEC 교육재단 사무국

Tel: 576-7373~4

Fax: 576-5303

E-mail: secretariat@apecf.org

➡ 2페이지에서 계속됨

한이 2007년 3월에 종료되어 본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이슈와 관련, 오는 6월 20일에서 23일 TFEP 재난 대응 CEO 세미나(TFEP Emergency Management CEO Seminar)가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5. APEC 프로세스와 ABAC간 관계 강화, 신규회원국 모라토리움, 비회원국 참여 및 APEC 개혁

회원국들은 기업의 참여가 APEC의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APEC 사무국이 APEC 프로세스와 ABAC간의 관계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토록 지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고위관리회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회원국들은 신규회원국 모라토리움 이슈가 민감한 사안임에 공감하고 본 사안은 9월에 있을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본 사안과 관련,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비공식 협의를 가질 것이며 본 비공식 협의의 결과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

(SOM II)에서 회원국들에 보고할 예정이다.

비회원국 참여 의제와 관련, 비회원국이 APEC 실무작업반에 옵서버 참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위원회 및 회의체에서 초청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기존의 지침을 유지하되, 신규회원국 모라토리움이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상황임을 감안, APEC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여를 신청한 각 비회원국이 '비회원국 참여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실히 점검하고 각 신청별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위관리회의는 APEC 사무국이 의장을 비롯한 회원국의 고위관리들에게 모든 비회원국 참여 신청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APEC 개혁 의제와 관련, 회원국들은 APEC 개혁이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사안임을 재확인하고 2006년 개혁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에 제안되었으나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문직 사무국장(term-appointed Executive Director)' 제도의 도입과 관련, 2007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근행사

PECC 태평양경제전망회의 (PEO Forecasters/SOTR Meeting)

(2007. 3. 17 ~ 18 일본 오사카)

태평양연안지역 국가들의 경제를 전망하고 올해 State of the Region Report 발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PECC 태평양경제전망회의가 지난 3월 17 ~ 18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측 대표로는 양수길 KOPEC 회장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각국 경제를 진단하고 태평양지역 수지불균형(trans-pacific imbalance)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미국경제는 약간의 둔화가 예상되나 큰 폭의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이며 일본경제는 최근의 양호한 성장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국경제의 경우, 정부의 긴축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장률의 하락폭은 아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올해 4.4% 내외로 성장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가계의 부채 및 주택가격 문

제,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적인 요인뿐 아니라 대외적인 위험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태평양지역 수지불균형에 대한 세션에서 이에 대한 학계의 여러 견해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대다수는 조정(correction)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불균형이 조정될 경우 단기적인 혼란의 정도는 미국의 과수요의 규모와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았으며, 미국 금리는 자본유출(capital outflow)로 조정될 경우 상승할 것이고 수요충격(demand shock)으로 인할 경우 하락할 것이며, 달러가치는 두 경우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는 Plaza Accord의 경험으로 미루어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조정에 대응하여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중국의 소비를 증진시키며 환율의 유동성을 높이고 국제적 정책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행사

2007년도 PECC 상임위원회 및 관련회의

(2007. 4. 29 ~ 30 호주 시드니)

제17차 PECC 총회

(2007. 5. 1 ~ 2 호주 시드니)

- 주제: Managing the Challenges of Growth

● 프로그램

- 5월 1일

[세션1] The State of the Region

[오 찬] The Rol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세션2] Building Institutions to Serve the Region

- 5월 2일

[세션3] Demographic Change, Growth and Integration

[오 찬] Ministerial Presentation

[세션4] Energy and the Environment

최근동향

2006년도 KOPEC 연구과제 출판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2006년 연구논문 모집의 결과를 단행본으로 묶어 Boarding the Horizon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Korean Perspectives를 올해 3월 발간하였고 이를 PECC 각국위원회, KOPEC 위원, 아·태전략포럼 회원 및 관련 연구원, 대학교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이 연구논문 모집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경제협력 비전과 과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개발하고 그에 따르는 국제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2006년 실시되었다.

- 연구논문 목록
 - Sub-Regionalism(FTAs/RTAs) in the APEC Region and

- the Road to the Bogor Goals
- Dealing with Domestic Conflicts in FTA Negotiations: Lessons from the Korea-Chile FTA and NAFTA
- Coping with Increased Capital Mobility: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The Transpacific Imbalance and Challenges to East Asian Economies: Risks and Agenda for Cooperation
- Promoting the Mobility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HRST) in the Asia-Pacific Region: Policy Agenda for Cooperation
- Dealing with Migrant Workers in the APEC Region: Experiences of Japan, Korea, and Hong Kong

최근행사

07년 KOPEC 아·태전략포럼 제1차 회의

(2007. 1. 12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 관점에서 본 세계경제 이슈(Russia's Perspectives on Global Economic Issues)'를 주제로 콘다코프(Kondakov) 러시아 외무부 경제협력국장을 초청하여 2007년도 제1차 아·태전략포럼을 지난 1월 12일 개최하였다.

콘다코프(Kondakov) 국장은 러시아의 작년 성장률은 약 7%였고 올해도 6.7~6.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부분 가스 및 광물 수출에 의한 것이나, 최근 러시아가 독일병(Dutch Disease)을 피하기 위해 다양화 정책을 시도 중으로 건강, 교육, 농업, 주택을 국가 우선 정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제투자와 관련해서는, 올해 G8 의장국인 독일이 투자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도 관련 국내법률을 정비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WTO 가입절차가 완료되어 회원국이 되면 DDA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아·태지역 국가로서의 정체성, FTA 정책, WTO 가입절차 등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한·러간 직접투자액이 상당히 적은 것을 지적하면서 양국이 상호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07년 KOPEC 아·태전략포럼 제2차 회의

(2007. 1. 18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인도의 입장(India's Perspective o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East Asia)'을 주제로 삼 샤란(Shyam Saran) 인도 수상 특별사절을 초청하여 2007년도 제2차 아·태전략포럼을 지난 1월 18일에 개최하였다.

삼 샤란 사절은 인도는 미국 및 유럽과의 균형을 위해 아시아와의 협력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동아시아지역과는 ASEAN+1을 통해 이미 원수급 대화를 매년 갖고 있고 개별국가와도 FTA 혹은 포괄적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며, 동북아국가와의 양자관계도 지난 수년간 발전되어왔다고 설명하였다. 인도는 동아시아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지만 EU나 NAFTA 등 여타 지역통합체에 대해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가질 수 있는 협력체로서 ASEAN+6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테러나 해적문제를 포함한 지역안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참석자들은 활발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인도의 성장잠재력과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에 주목하였고 인도의 정치와 경제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07년 KOPEC 아·태전략포럼 제3차 회의

(2007. 2. 22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아·태지역협력 동향'을 주제로 2007년도 제3차 아·태전략포럼을 지난 2월 22일 정부 담당자들을 모시고 개최하여 아·태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성문업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장은 올해 APEC에서는 아·태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안전한 역내 교역여건 형성,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 에너지 문제 등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무역·투자자유화와 원활화 관련 이슈 중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에 주목하며 미국은 FTAAP가 WTO 프로세스와 보고르 목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ABAC은 양자간 FTA 폭증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FTAAP를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점으로 APEC 지원기금(ASF)이 많이 확충된 점을 들었으며, 한국은 2007 ~ 09년 200만 달러를 공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중철 외교통상부 동남아과장은 ASEAN+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결과를 발표하고 주요성과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설립 추진에 기초가 될 민간연구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확보, ASEAN+3 과학영재센터 설립 제안 및 공감대 형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지 확보, 한·ASEAN FTA 실현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의지 확인 등을 거론하였다. 그는 두 협의회 모두 테러, 재난 등에 대한 공동대응, 역내 사회문화적 교류 증진, 역내 다자경제협력체 구축,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한 동북아 3국의 협력 방안 모색, 북한 핵문제와 같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역내 국가의 지지 확보 등의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높고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문홍성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은 ASEAN+3 재무장관 프로세스에서는 선진화된 지역협력체 수립(즉 CMI의 다자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관련 논의는 신용보증·투자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고 이를 어떻게 기구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채택된 12개 공동추진과제 중 하나인 고령화 관련 이니셔티브(고령화가 재정정책,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를 한국이 제기하여 그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하는 방식이 APEC 내에서 활동지향적(action oriented)인 이니셔티브의 훌륭한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제33차 이사회 및 제21차 총회 개최

(2007. 3. 30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제33차 이사회 및 제2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제33차 이사회는 총원 19명 중 위임자 포함 14명으로 성원되어 2006년도 결산(안), 2007년도 사업계획, 2007년도 실행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제21차 총회는 총원 74명 중 위임자 포함 50명으로 성원되어 양수길 회장의 취임(2006. 11. 20)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KOPEC의 조직 및 사업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관을 개정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선임위원의 임기(3년)가 신설되고 신규 이사기관 영입을 위해 이사의 수가 20인에서 30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회장이 맡고 집행위원은 위원 중 선별 위촉하여 KOPEC의 사업방향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현 당연직 고문(재정경제부 장관, 경제4단체장) 외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국내기업 CEO, 고위공무원 혹은 학자 등을 위촉하여 고문단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개편하여 활동을 증진시키는 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향후 관련 추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및 승인 받기로 하였다.

향후행사

07년 KOPEC 아·태전략포럼 제4차 회의

(2007. 5. 17 서울)

▶ 회의 관련 문의사항이나 자료는 KOPEC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KOPEC 사무국

Tel: 02-3460-1240 ~ 3 Fax: 02-3460-1244

E-mail: kopecsec@kopec.or.kr

출판물



- ◆ Evaluation of Access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ased Lines in the APEC Region (November 2006)
- ◆ 2006 Report of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PEC Secretariat to the 18th APEC Ministerial Meeting (November 2006)
- ◆ APEC Symposium on Socio-Economic Disparity-Proceedings (November 2006)
- ◆ Workshop on Effective Strategies for IPR Public Education-Proceedings (November 2006)
- ◆ APEC IPR 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Platform (November 2006)
- ◆ Enhancing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Stage 1): Reducing Barriers to Investment across APEC to Lift Growth and Lower Poverty (November 2006)
- ◆ APEC Review on Counter-Terrorism, 2001-2006 (November 2006)
- ◆ APEC Customs-Business Partnership Programmes, September 2006
- ◆ Public-Private Dialogue on Trade Facilitation-Proceedings, May 2006
- ◆ 4th APEC SOM Policy Dialogue on RTAs/FTAs, May 2006
- ◆ Handbook on Prepackaged Goods, Part of the APEC/APLMF Training Courses in Legal Metrology July 2006
-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Strategies, September 2006
- ◆ Trade Facilitation (Shanghai Accord) Report, September 2006
- ◆ APEC Workshop on Best Practices in Trade Policy for RTA/FTAs, 2006
- ◆ APEC Outcomes and Outlook 2005/2006
- ◆ APEC at a Glance, 2005/2006
- ◆ Trade Facilitation Brochure, 2005/2006
- ◆ Networking Asia-Pacific : A Pathway to Common Prosperity, 2005
- ◆ A Mid-term Stocktake of Progress towards the Bogor Goals, 2005
- ◆ Patterns and Prospects on Technological Progress in APEC, 2005
- ◆ Impact of Oil Price on Trade in the APEC Region, 2005
- ◆ Follow up Study: Impact of APEC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2005
- ◆ 2005 Key APEC Documents(With Supplementary papers on CD-ROM)
- ◆ Capacity Building for Trade and Facilitation, 2005
- ◆ SSCP: Blueprint: Towards One Community, 2005
- ◆ 2005 APEC Economic Outlook
- ◆ APEC Energy Overview, 2005
- ◆ Quantitative Methods for Assessing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Facilitation, 2005
- ◆ 2004 APEC Documents (With Supplementary papers on CD-ROM)
- ◆ Realising Innovation and Human Capital Potential in APEC, November 2004
- ◆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Liberalisation: From Shanghai to Bogor, November 2004
- ◆ Bridging the Pacific: Coping with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2004: ABAC Report to APEC Economic Leaders
- ◆ Harmony in Diversity: Achieving Balanced and Equitable Growth: Report to the APEC Economic Leaders, 2003
- ◆ Drivers of The New Economy in APEC, October 2003
- ◆ 2003 Key APEC Documents
- ◆ Sharing Development to Reinforce Global Security : Report to the APEC Economic Leaders, 2002
- ◆ Benefi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2002
- ◆ Application of E-commerce Strategies to Small and Medium Sized Tourism Enterprises in the APEC Region, 2002
- ◆ The New APEC Economy : Innovations, Digital Divide and Policy, 2002
- ◆ 2002 Key APEC Documents
- ◆ APEC High level Meeting on Human Capacity Building, Selected Documents, 2001
- ◆ 2001 Key APEC Documents
- ◆ New Economy and APEC, 2001
- ◆ 2000 Key APEC Documents

APEC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E-mail : kimhs@kiep.go.kr
Tel : 02-3460-1096
Fax : 02-3460-1162

APEC Secretariat
E-mail : jt@apec.org
Tel : 65-6775 6013
Fax : 65-6775 6012



- ◆ State of the Region, 2006
- ◆ The Evolution of PECC: The First 25 Years, 2005
- ◆ Towards a Pacific Community: Renewing the Commitment (proceedings of PECCXI), 2005

- Finance

- ◆ Impediments to Cross-Border Investment in Asian Bonds, PECC & ISEAS, 2005
- ◆ Developing Asia Bond Markets, Asian Pacific Press, 2004
- ◆ 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 Asia-Pacific and the Western Hemisphere, 2004
- ◆ Finance Forum CD: Issues and Challenges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2004
- ◆ ISSUES@PECC 시리즈
 - Developing Bond Markets in the APEC Region: Need and Agenda for Public-Private Sector Partnership, 2004
 - Strengthening Domestic Financial Systems in APEC: PECC Scorecard Initiative for Tracking Progress in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n Banks, 2004
 - Strengthening Domestic Financial Systems in APEC: Recommendation of Launching an APEC Peer Review Process Assessing Progress on Domestic Reform, 2004
 -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 Interim Assessment and Challenges to APEC, 2004
 - Developing an Asian Bond Market: Rationale, Concerns, and Roadmap, 2004

- Trade

- ◆ Study on the Mutually Supportive Advancement of APEC's Trade Facilitation and Secure Trade Goals post September 11, 2005
- ◆ Perspectives on Services Regulatory Issues (e-publication), 2004
- ◆ Perspectives on the Services - Investment Nexus (e-publication), 2004

- Community Building

- ◆ Implementing the e-APEC Strategy, 2004

- Outlooks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5-2006: A Revolution in Food Retailing, 2005
-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5-06, 2005
-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4-05, 2004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4-2005: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a Seamless Food System, 2004

PECC, KOPEC 관련 자료 및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E-mail: kopecsec@kopec.or.kr
Tel: 02-3460-1243
Fax: 02-3460-1244

향후행사일정

DATES AND VENUES	APEC EVENTS	PECC EVENTS
April 2007		
16-24 Adelaide, Australia	SOM I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18-20 Melbourne, Australia	APEC Study Centers Consortium Conference	
29-30 Sydney, Australia		2007 1st PECC Standing Committee and Related Meetings
May 2007		
1-2 Sydney, Australia		The 17th PECC General Meeting
10-11 Melbourne, Australia	Senior Finance Officials' Meeting	
27-30 Darwin, Australia	8th APEC Energy Ministerial Meeting	
29-6.01 Tokyo, Japan	2nd Meeting of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June 2007		
6-8 Sydney, Australia	APEC Health Minister' s Meeting	
22-07.03 Queensland, Australia	SOM II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한국) HOME PAGE

<http://www.kiep.go.kr/apec/ansc-info.asp>

KOPEC HOME PAGE

<http://www.kopec.or.kr>

APEC 교육재단 HOME PAGE

<http://www.apecef.org>

APEC HOME PAGE

<http://www.apec.org>

PECC HOME PAGE

<http://www.pecc.org>